

『어떤 여자(或る女)』와 『니고리에(にぎりえ)』에 나타난 질투의 성차(性差)*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와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시선을 중심으로-

** 우 성 아

(e-mail: seongamail@naver.com)

目 次

1. 서론
 2. 본론
 - 2.1 『니고리에』를 읽는 아리시마
 - 2.2 『니고리에』의 오리키와 『어떤 여자』의 요코
 - 2.3 『니고리에』의 오하쓰와 『어떤 여자』의 구라치의 아내
 - 2.4 『니고리에』와 『어떤 여자』에 나타난 질투의 양상
 - 2.5 「떨어지는(落ちる)」여자들
 3. 결론
-

1. 서론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어떤 여자(或る女)』는 1919년 『아리시마 다케오 저작집(有島武郎著作集)』 2권에 전후편으로 간행되었다. 1913년 잡지 「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702)

** 경북대학교 시간강사 일본근대문학

라카바(白樺)」에 발표된 「어떤 여자의 일별(或る女のグリップス)」의 개작으로 6년간의 집필기간의 공백을 거쳐 완성되었다. 주인공 요코는 메이지 근대라는 제한된 시, 공간을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여자이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지만 그 사랑은 이해받지 못한 채 슬픈 운명에 조롱당한다. 주위 여자들을 대할 때의 요코의 태도는 질투¹⁾로 일관되고 있으며, 요코에게 적이 아닌 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구치 이치요의 『니고리에(にぎりえ)』는 1895년 『문예구락부(文芸俱樂部)』에 발표된 것으로 기쿠노이(菊の井)의 작부 오리키(お力)를 주인공으로 그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단편소설이다. 온전한 가정을 꿈꾸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작부의 몸으로 한 많은 인생을 살다 끝내 무리정사로 삶을 마감한다.

두 여자는 메이지시대라는 공간에서 공존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분명 다른 운명의 삶을 살았을, 그 여자들에 대한 작가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치요의 『니고리에』는 오리키와 오하쓰라는 여자들이 둘 다 주인공이자 그들의 이야기라면, 아리시마의 『어떤 여자』는 전적으로 요코중심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니고리에』를 통해 작부와 아내라는 각각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고, 『어떤 여자』를 통해 남자들과의 대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아닌 여자가 말하는 여자, 남자가 말하는 여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메이지시대를 산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아리시마와 이치요,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시선을 통해 두 작품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질투라는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싶다.

먼저, 아리시마는 「관상록(觀想錄)」이라는 자신의 일기와 「어느 6월의 일기(ある六月の日記)」라는 에세이를 통해 이치요와 그 작품에 관해 언급하고 이치요의 천재성에 탄복했다. 또 그러한 간접 만남으로 「어떤 여자의 일별」의 다즈코(田鶴子)는 『어떤 여자』의 요코(葉子)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게다가 『어떤 여자』의 전신인 「어떤 여자의 일별」에는 없던 표현이, 「어느 유월의 일기」에 묘사되고 다시 『어떤 여자』의 요코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음을 알

1) 보리스 소콜로프는 <질투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질투는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라고 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으로서의 질투를 남녀작가들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질투를 뜻하는 영어 ‘Jealousy’는 프랑스어에서 왔다.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jaloux’와 ‘jalousie’는 모두 라틴어 ‘zelosus’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열정과 따뜻함, 열성 또는 강한 욕망이었다. <질투p.56> 데이비드 버스는 질투와 시기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기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탐욕과 악의 그리고 나쁜 감정 등을 포함한다. 반면 질투는 자신이 이미 가진 소중한 짝을 경쟁자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포함한다.’

게 되었다. 2)

본 논문은 두 작가의 접점을 찾은 데서 좀 더 나아가 내용적으로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니고리에』와 『어떤 여자』의 여주인공인 요코와 오리키를 중심으로, 아리시마와 이치요의 시선을 통해 나타난 여주인공들의 질투에 대해 비교 고찰해 보겠다.

2. 본론

2.1 『니고리에』를 읽는 아리시마

아리시마는 어느 유월 가부키 「니고리에」를 관람하고, 그 감상을 「어느 유월의 일기」에 남기고 있다. 그 감동을 에세이로 적은 것인데, 『니고리에』의 남자주인공 겐시치(原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먼저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처자를 뺏기면서, 불행의 원천인 오리키에게 더욱 맹목적인 집착이 심해져서, 자기와 처자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집착과, 눈물 많은 여자의 약점에 폭 빠져가는 듯한, 약점인 강점이라고 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마침내 오리키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불행한 겐시치가, 스스로를 주체하기 어려워져서,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나뒹굴었다 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³⁾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처자를 뺏기면서」라는 표현은 아리시마의 평론 『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惜みなく愛は奪ふ)』의 사랑법이 집약된 표현이면서 『어떤 여자』의 요코와 구라치의 사랑법이기도 하다. 아리시마는 이러한 아리시마적인 사랑법을 『니고리에』에서도 찾아내고 있다. 오리키를 사랑하게 되면서 겐시치는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처자까지 빼앗기지만 그의 집착은 심해지기만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오리키의 사랑을 얻으려는 것으로 겐시치의 사랑방식인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빼앗는 오리키의 사랑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겐시치의 사랑은 오리키를 향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결국 집착은 두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 아리시마는 겐시치를 「체면대로이고 극단적으로 눈물이 많은 오리키가 운명적으로 반하지 않을 수 없는

2) 禹聖雅(2008) 「有島武郎と樋口一葉」 「日本文化論叢」第8輯 大韓日本文化学会

3) 有島武郎(1918) 「ある六月の日記」新潮

남자」라고 했다. 그러나 출세에 대한 욕망과 가난한 겐시치와의 사랑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오리키는 갈등을 한다. 아리시마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오리키도 겐시치도, 대다수의 인간이 그렇듯이, 결점투성이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사회의 약속과 습속을 엉망으로 짓밟았다. 짓밟은 운명은 그들을 마음껏 농락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심오한 요구를 짓밟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 요구를 위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순사했다. 그 pathos 에 나는 감동해서 울었다.⁴⁾

이 부분 또한 『어떤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아리시마적인 문장이 아닐 수 없다. 사회상의 약속과 습속을 깨고, 운명의 장난에 농락당하는 주인공 남녀는 『니고리에』의 오리키와 겐시치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어떤 여자』의 요코와 구라치(倉地)이기도 하다. 위의 문장에서 오리키가 겐시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즉 아리시마는 두 사람의 사랑에 무게를 두고 감상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심오한 요구」가 그들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점투성이인 두 남녀이기에 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엄격하고 냉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정사를 감행했을 때, 아리시마는 그들의 죽음을 「순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pathos」에 감동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사랑, 집착에 의해 파멸해가는 사랑, 이것은 오리키와 겐시치의 사랑이면서 『어떤 여자』의 요코와 구라치의 사랑법이기도 하다. 아리시마의 일기에 의하면 아리시마는 1918년 6월 가부키좌(歌舞伎座)에서 이치요의 「니고리에」를 감상하고, 같은 6월 『니고리에』를 읽고, 7월에 『어느 유월의 일기』에 그간의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1919년 3월 『어떤 여자』 전편을 개고하고, 1919년 6월 후편을 씌으로써 『어떤 여자』를 완성하고 있다. 「어느 유월의 일기」를 쓸 당시 아리시마는 이미 『어떤 여자』를 개고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치요의 『니고리에』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아리시마를 울게 했던 「pathos」는 그대로 『어떤 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어떤 여자』와 『니고리에』의 두 여주인공을 비교·고찰해보도록 하자.

4) 有島武郎(1918) 「ある六月の日記」 新潮

2.2 『니고리에』의 오리키와 『어떤 여자』의 요코

『어떤 여자』와 『니고리에』는 닮았다. 고 하면 당돌하지만, 또 장편과 단편이라 비교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았다고 느끼는 것은 두 여주인공의 성향 때문일 것이다.

『니고리에』의 오리키는 동료로부터 수완이 좋다는 소리를 듣는 「기쿠노이」를 대표하는 작부이다. 또 동료들은 「너는 제멋대로가 통하니까 대단해」라며 부러워하기도 한다. 오리키는 작부로서 「손님을 끄는데 묘한 재주가 있고, 「기량」이 있으며, 「정말이지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 하지만 「제멋대로가 통하는」 여자이다. 그러나 오리키는 여전히 작부이다. 山本欣司는 이제껏 오리키가 특권화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님을 끄는데 묘한 재주가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허락되는 작부이지만, 「그녀도 동료들과 같이, 작부로서의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울 리 없다」⁵⁾라는 것이다. 오리키를 묘사한 글들을 보면 다른 작부들과는 이질적인 존재인 듯 여겨진다. 위의 문장에서 보는 오리키는 다른 작부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기쿠노이의 오리키」는 「기쿠노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는 여자이고,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신세임은 제아무리 오리키라 하더라도 다른 동료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여자』의 요코도 남자를 다루는 「재치(タカ)」를 가진 여자이다. 「다가오는 남성들에 대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는 여자이기도 하다. 19세의 나이에 이미 여러 명의 남자에게 사랑고백을 받고, 능수능란하게 그 관계 속에서 맘껏 즐기는가 하면, 전남편인 기베(木部)와 헤어지고 나서는 다가오는 남자 누구에게나 제멋대로 굴기도 한다. 하지만 오리키가 아무리 다른 동료들과는 비교될 만큼 재주가 있었다 해도 「기쿠노이의 오리키」로서 다른 여자들 처럼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요코 또한 남성들을 제멋대로 농락했지만 메이지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자였다.

오리키도 요코도 주위의 다른 여자들과 이질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들의 이질성은 다른 여자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요괴」가 되고, 「악마」가 된다.

누가 매춘부를 백여우(白鬼)라 이름 붙였는지, 어딘지 모르게 무간지옥의 모습이다. 딱히 계략이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거꾸로 떨어지는 피의 연못, 빗더미의 바늘 산에 내모는 것이 주특기라고 듣고 나면, 들렀다 가라며 알랑대는 목소리도 뱀잡아먹으려는 핑처럼 무서워진다. 6)

5) 山本欣司(2009) 「過去を想起するということ—「にこりえ」を読む—」 『樋口一葉豊饒なる世界へ』和泉書院 p.122

‘백여우(白鬼)’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로 오리키같은 작부를 이르는 말인데 ‘요괴(鬼)’라는 한자가 들어있다. 게다가 오하쓰는 아들인 다키치(太吉)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 여자는 요괴(鬼)잖아. 아버지를 게으름뱅이로 만든 요괴(鬼)잖아. 네가 옷이 없게 된 것도, 네 집이 없어진 것도 모두 저 요괴(鬼)가 한 일이야. 물어뜯어도 시원찮은 악마에게 과자를 받다니, 먹어도 좋은지 묻는 게 한심스럽다.⁷⁾

오리키는 유키 도모노스케에게 「저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몹시 미운지 나를 요괴, 요괴라고 불러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아들의 입에서 자연스레 「요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머니 오하쓰의 영향일 것이다. 평소에는 참고 울분을 삭이던 오하쓰지만 다키치가 오리키로부터 카스테라를 받아오자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오하쓰가 오리키를 가리켜 말하는 「요괴(鬼)」라고 하는 것은, 오리키가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간 존재였기 때문이고, 지금도 카스테라로 아들의 마음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게 된다. 위의 인용은 특히 오하쓰가 자신의 집안의 모든 영락함의 원인을 오리키에게 돌리고, 아들에게도 오리키의 잘못으로 인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菅 聡子は 「<니고리에>라는 장소는, 여자가 여자를 증오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⁸⁾라고 했다. 「장소를 불문하고 걸가는 남자들의 소매를 끌고, 염가로 몸을 파는 여자들은, 가정 내 여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 『니고리에』에서는 특히 아내들의 증오가 그녀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하쓰는 「요괴」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다.

오리키에게 「요괴」적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요코는 악마적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약혼자인 기무라의 친구 고토는 기무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신은 악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매력(Attraction)만은 주었다. 이런 생각도 한다.요코의 매력은 어디서 왔을까.(『어떤 여자』十九)

6) 樋口一葉(1998) 『たけくらべ・にこりえ』 角川文庫 p.99

7) 樋口一葉(1998) 『たけくらべ・にこりえ』 角川文庫 p.112

8) 菅 聡子(1999) 『時代と女と樋口一葉』 日本放送出版協会 p.193

이것은 요코의 악마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이 악마에게 ‘attraction’을 주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여자』의 악마는 매력적인 존재로서 상대의 마음을 빼앗는다. ‘악마적’이란 것이 ‘사악한’이나 ‘잔학한’의 의미는 없는 듯하다. 오히려 ‘마성적’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요코가 구라치에게 끌린 것은 구라치의 「팔에 악마같은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인 것이다. 요코도 ‘attraction’이라는 악마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매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라치의 악마적(diabolic)인 면과 요코의 매력(Attraction = 惡魔性)이 서로를 끌어당겼을 것이다. 한사람에게는 악마적인 웃음소리와 모습을, 또 한사람에게는 악마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징으로서의 매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의 남녀에게 악마성을 갖게 함으로써 매력(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악마, 즉 빼앗는 힘을 가진 남녀, 바꿔 말하면 「빼앗는 사랑(奪愛)」을 실천하는 남녀를 그리려고 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으로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자기와의 관계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어서, 그곳에 다가오면 가차없이 그 남자를 버려 버림으로써 여자를 짓밟으려는 남자를 역습한다. 그들에게도 요코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악마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오리키와 요코는 언뜻 보면 닮은 듯하다. 한명은 요괴로 다른 한명은 악마로 언급된다. 하지만 오리키의 ‘요괴’는 가정 내의 여자들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협의 대상이었다면, 요코의 ‘악마’는 ‘attraction’을 지닌 매력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요괴로 불린 오리키는 괴로워하는 반면, 요코는 악마적인 구라치를 좋아하기도 하고, 악마로 불리는 것을 재밌어 한다. 이처럼 남녀관계에서 사랑을 빼앗는 존재인 요코와 오리키가 있는가하면 빼앗기는 존재로 아내들이 있다. 작품 속 아내들을 살펴보자.

2.3 『니고리에』의 오하쓰와 『어떤 여자』의 구라치의 아내

『니고리에』의 오하쓰는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겐시치의 조강지처이다. 한때는 남편이 「행세깨나 하던 이불장수」였지만 지금은 영락한 집안의 불품없는 아내이다.

마누라는 오하쓰라 하여 스물 여덟 아홉은 되어 보이는, 가난에 쪼들려서 예닐곱은 족히 더 들어 보이고 검게 물들인 이빨도 얼룩덜룩하다. 마구 자란 눈썹도 불품없고, 바랜 목면 유카타의 앞뒷면을 바꾸어 무릎끼는 눈에 띄지 않게 가는 바늘로 덧댄 오비를 꼭 졸라매고 고마게다의 깔창을 만드는 부업

을 하는데, 백중을 앞둔 대목이라 한창 더위에도 땀을 줄줄 흘리며 일하기에 여념이 없다.⁹⁾

남편인 겐시치가 오리키에게 빠져 가세가 기울면서 오하쓰는 여자로서 자신을 꾸미는 것은 고사하고, 얼룩덜룩해진 이빨, 마구 자란 눈썹, 덧댄 바지 등 볼품없는 몰골을 하고 있다. 게다가 생계를 위해 더운 날에도 부업으로 정신이 없다. 이것이 겐시치의 아내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겐시치는 집안일은 개의치 않고 오리키를 잊지 못해 오리키 주위만 서성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오하쓰의 삶을 뒤바꾼 오리키는 오하쓰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이 동네에서 행세깨나 하던 이불장수 겐시치란 사람이예요. 오래 전부터 단골손님인데 지금은 쫓딱 망해서 형편없는 신세가 되었죠. 채소가게 뒤 작은 집에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어, 나 같은 건 만나러 올 나이도 아한테 미련이 남았는지, 아직도 가끔씩 핑계를 대고 오네요. 지금도 아래층에 들른 모양이에요. 이제 와서 모른 체하자는 건 아니지만 돌려보내는 것이 좋아요 원망을 사는 건 이미 각오한 일. 여우라 하든 독사라 하든 상관없어요!¹⁰⁾

오리키와 오하쓰는 직접 만난 일은 없다. 이에 대해 伊藤氏貴는 「작부 오리키, 아내 오하쓰. 이 두 사람이 같은 장면에 만나는 일은 없다. 언뜻 양자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제도>가 가져온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¹¹⁾라고 했다. 오리키도 분명 겐시치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겐시치집안이 망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은 없다. 아직도 자기에 대한 미련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데도 찾아온다고 비난하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다. 위의 말에서는 겐시치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자신과 겐시치로 인해 고통당할 겐시치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불리든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나 그 마음 밑바닥에는

‘에라, 어찌되든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해도 내 앞길을 모르겠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기쿠노이의 오리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정

9) 樋口一葉(1998) 『たけくらべ・にごりえ』、角川文庫 p.95

10) 樋口一葉(1998) 『たけくらべ・にごりえ』角川文庫 p.91

11) 伊藤氏貴(2004) 「一葉——その視線の圏域」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樋口一葉 日記の領分/創作の場」 学灯社 p.191

없는 것, 의리 없는 것, 그런 것 생각하지 말자. 생각한다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몸예, 이런 장사에, 이런 숙명인 이상, 어떻게 하더라도 평범하지 않을 것은 틀림없어. 보통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잘못이야¹²⁾

라고 하는 자괴감이 있다. 인정없다는 소리도 의리없다는 소리도 상관하지 말자. 내 처지에 그런 생각한다한들 달라지는 게 뭐 있겠는가. 평범하지 않은 숙명을 타고난 처지에 평범한 사람들 흉내를 내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다. 라며 「될 대로 되라」고 한다. 이것은 어찌 할 수 없는 운명에 좌절하는 모습이다.

‘내 맘대로 살자’ 생각하며 요코는 또다시 불가사의하고도 어두운 힘에 마냥 이끌려갔다. 이런 처지가 된 지금, 미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약간의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상황이라도 좀 바뀌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될 대로 되라. 요코의 마음을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녀 주변에는 하나도 없었다. (『어떤 여자』 六)

위 인용은 오리키처럼 「될 대로 되라」라고 외치는 요코의 모습이다. 이 부분은 『어떤 여자』 개고시 수정된 부분으로 『니고리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다. 어두운 운명의 힘에 이끌려가는 요코의 삶을 잘 나타내준다.

오리키는 오하쓰에게 영락한 삶을 가져다주었고, 그러면서도 인정이니 의리니 고민하고 미안해 할 주제도 못 된다고 여겼다고 했다. 『어떤 여자』에는 오하쓰와 대비되는 여자로서 구라치의 아내가 있다. 요코도 구라치의 아내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또 아내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내는 그 존재만으로 요코에게 위협이 된다. 요코가 구라치의 아내를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요코는 처음 구라치의 선실에서 사진을 봄으로써 구라치의 아내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라치의 지인인 요리집의 여주인으로부터 아내의 존재를 듣게 된다. 그 짧은 시간에 요코가 얻은 정보는, 그녀가 세 딸의 어머니며, 「어디를 보더라도 결점을 찾을 수 없는 부인」이라고 하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요코는 사진을 통해, 정숙한 아내의 인상에 불안감을 느낀다.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을 셋이나 두고 있는 구라치의 마음이 언제까지 요코에게 끌릴지, 그것을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요코의 마음은

12) 樋口一葉(1998) 『たけくらべ・にこりえ』 角川文庫 p.103

인력거안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차가워져 갔다.(『어떤 여자』二十六)

요코의 불안한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구라치의 아내는 직접 등장하지 않고, 요코를 통해 언급되는 존재이다. 구라치도 자신의 아내나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는다. 요코는 그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구라치가 정숙한 아내와 딸들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더욱 불안해한다. 다음은 처음으로 구라치의 아내의 사진을 보는 요코의 모습이다.

신기한 것을 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의 적이 어떤 짐승인지 확인해주겠다는 격한 적개심이 갑자기 불타오르고 있었다. 전에는 게이샤이기라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에 맞추려고 그렇게 꾸민 것인지, 어딘가 화류계여성같은 예쁜 올림머리의 여자가 차려입고, 세 명의 소녀를 무릎에 앉히거나 옆에 세워서 찍혀 있다.(『어떤 여자』十五)

요코는 구라치의 아내와 세 딸의 사진을 보면서 「적개심」을 불태우며, 자신의 「적」을 바라보고 있다.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구라치의 아내는 요코의 질투의 대상으로 격한 미움을 받는 존재이다. 구라치의 아내의 아름다움은 요코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니고리에』의 오하쓰와 『어떤 여자』의 구라치의 아내는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겨 버리는 여자들이다. 菅 聡子は 「<니고리에>라는 장소는 여자가 여자를 증오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로 「니고리에」는 서로 적이 된 두 여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하쓰는 오리키를 「요괴」로 인식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여자』의 구라치의 아내는 침묵하고 있다. 구라치의 아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있지 않다. 신문지상에 에지마마루(絵島丸)호의 사무장이라는 언급과 함께 요코와의 불륜이 대서특필되었기 때문에, 구라치의 아내도 이미 요코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여자』도 여자들끼리 적이 되어 있는 구조임에는 틀림없다. 구라치의 아내와의 눈에 보이는 대립없어도, 요코는 구라치의 아내라는 존재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강한 적개심, 그리고 강렬한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구라치의 아내의 침묵은 의도된, 즉 작가에 의해 의도된 배제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여자』와 『니고리에』는 여자들끼리 서로 적으로 공존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질투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각

작품에 나타난 질투에 대해 살펴보자.

2.4 『니고리에』와 『어떤 여자』에 나타난 질투의 양상

『니고리에』에 나타난 질투를 살펴보자. 겐시치와 오하쓰의 아들인 다키치가 오리키에게서 카스테라를 받아온 날, 오하쓰는 요괴한테 그런 것을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야단을 친다. 그것을 본 겐시치는 「오리키가 요괴면 넌 마왕이야」라는 말을 하는데, 이처럼 『니고리에』에 「요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주로 오리키를 향해 오하쓰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질투에 화를 내는 오하쓰를 보고 겐시치가 「오리키가 요괴면 넌 마왕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허구헌날 남편의 욕을 해대든가, 오리키에게 질투(妬み)를 하니 하도 들어서 이제 지긋지긋하고 싫어.¹³⁾

결혼생활동안 조강지처로서 겐시치의 행동에 애를 태운 오하쓰의 심정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집안을 몰락시킨 오리키에 대한 원망을 감출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겐시치의 말에 따르면 오하쓰는 허구헌날 오리키에게 욕을 해댔다. 겐시치는 오하쓰가 질투심에 그렇게 한 것임을 알고 있다. 겐시치가 「마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어떠한 행동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하쓰의 질투심이 폭발함으로써 나타난 오하쓰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질투에 불타는 오하쓰의 일그러진 얼굴은 분명 「마왕」의 얼굴이었을 지도 모른다. 오하쓰가 오리키를 가리켜서 「요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몰락시킨 작부에 대한 원한, 반감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요괴」라고 부르는 오하쓰도 「마왕」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겐시치가 「마왕」이라 부르는 것은 「오리키에 대한 질투」로 변해버린 오하쓰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오하쓰가 「마왕」이 되었듯이, 여자들을 「요괴」로 만드는 것이 질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오하쓰는 질투에 의해 요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겐지 이야기(源氏物語)』에 나오는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는 질투 때문에 생령이 되어 아오이노우에(葵の上)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처럼 오하쓰도 질투 때문에 「마왕」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질투 때문에 요괴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노(能)의 오니멘(鬼面)이 있다. 오니멘중에서도 여자 오니멘들은 질투에 의해 「요괴」가 된 여자를

13) 樋口一葉(1998) 『たけくらべ・にこりえ』 角川文庫 p.113

뜻한다고 한다. 질투가 여자를 「요괴」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질투로 인한 원한의 정도에 따라 데이간(泥眼)¹⁴、하시히메(橋姫)、한냐(般若)¹⁵ 등이 있다. 데이간은 신분이 높은 미녀가 질투에 미치는 모습을 뜻한다. 그리고 하시히메는 보다 질투의 정도가 더한 것으로, 질투에 미친 모습을 나타낸다. 또 한냐는 「질투와 한이 담긴 여자의 얼굴」로, 질투의 정도가 보다 심해, 요괴같은 형상이 되어있다. 이 한냐는 『겐지이야기』의 미야스도코로가 아오이노우에를 저주하며, 생령이 되어 괴롭히는 에피소드에서 유래된 것이다. 겐시치에게 「마왕」으로 비쳐진 오하쓰는 한냐의 모습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오하쓰라는 인물은 현재는 가난해서 보잘 것 없지만 자신은 「기쿠노이의 오리키」와는 다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다. 오리키를 두고 「그런 여자는 사고 파는 물건이나 마찬가지로인데, 돈만 있으면 옛날처럼 대접받을 수 있어요」라며 물건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괴」라 욕하면서도 감정을 꺾꺾 눌러왔지만 카스테라 사건으로 인해 질투심이 폭발하면서 오하쓰의 얼굴은 「요괴」가 되어버렸을 지도 모른다. 오하쓰의 질투는 남편인 겐시치에 대한 것에서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대신하는 듯한 아들 다키치에게 이어져 오리키가 아들에게 손을 뻗었다고 생각했을 때 폭발하고 있다. 이것은 남편과 재산뿐만 아니라 가정자체를 위협당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안에서 온 것이라 여겨진다.

아내인 오하쓰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오리키에 대한 질투심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치요의 작품에서는 드물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남편의 무관심과 무능함을 참았지만 결국 쫓겨날 처지에 놓인 여자, 그러면서도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있다. 겐시치에게는 「마왕」으로 비쳐지는 모습이었지만, 분노하는 여자이자 아내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아리시마 다케오는 『돌에 짓눌린 잡초(石にしがれた雑草)』를 썼다. 『어떤 여자』를 쓰기 1년 전이다. 처음 「태양(太陽)」에 게재된 것을 1918년 9월에 총문각(叢文閣)에서 간행된 아리시마전집 「태어나는 괴로움(生まれ出づる悩み)」에 약간의 본문수정을 거쳐서 수록한 것이다. 주요등장인물은 실업자인 A, 그 아내인 M코, 그리고 A의 친구이고 M코의 애인인 가토 세 명이다. A는 M코에게 첫눈에 반해서 약혼을 하지만, 결혼은 아직 이르다는 M코의 의견을

14) 『広辞苑』第五版 [電子辞書]、カシオ

데이간(泥眼)、노넨의 일종으로 눈에 금니를 얹게 칠한 여자가면. 무시무시함이 있고, 질투심을 가진 여자나 여자보살역에 이용한다.

15) 『広辞苑』第五版 [電子辞書]、カシオ

한냐(般若)、노넨의 하나로 뿔이 있고 질투나 괴로움, 분노를 띤다.

받아들여 외유를 떠난다. A는 3년간의 외유를 마치고 돌아오지만, 사랑하는 이의 직감으로 M코를 의심하고 결국 M코와 친구인 가토와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A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고 M코와 결혼한다. 그러던 중에 A는 다시 M코와 가토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M코는 A의 집착, 질투, 복수로 거의 폐인이 된다. A는 가토에게 편지와 M코를 남기고 모습을 감춘다.

이 작품은 주로 「『어떤 여자』의 변주」로서 논의되어져왔다. 이는 『어떤 여자』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돌에 짓눌린 잡초』에 나타난 질투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돌에 짓눌린 잡초』는 불륜한 아내를 두고 느끼는 질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작품이다.

「도대체 누가 이 여자를 독점하게 될까. 저 머리카락을, 저 뒷목을, 저 여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옷맵시를. 저 여자가 누구에게도 독점되지 않는다면, 나도 별로 독점할 생각은 없다. 나는 조용히 저 여자를 찬미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하지만…」

그러나 누가 저대로 M코를 내버려둘 것인가 생각하니, 나는 복받치는 듯한 질투를 누구에게라고도 할 것 없이 느꼈다……안절부절못할 것같은 질투를. 나에게서 M코의 마음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이 원망스러워졌다. 사람의 마음이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이 원망스러워졌다. 왜 그런지 단숨에 죽여버리면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같은 질투다. 그리고 나보다도 분명 연상인, 필시 약삭빠른 M코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추측하니 이 기괴한 질투는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¹⁶⁾

中村三春은 질투를 삼각관계라는 구도속에서 논하며 질투란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감정임을 상기시키고 있다.¹⁷⁾ 위의 인용글은 어떻게 관계속에서 A가 M코를 질투하는지 보여준다. 아무도 M코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M코를 그냥 둘 수 없는 불안함, 그 아무가 누구나 될 수 있기에 더 질투가 심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돌에 짓눌린 잡초』가 남자의 질투이야기라면, 『어떤 여자』는 여자의 질투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A가 가토라는 친구에게 질투를 느꼈다면, 요코는 주변 모든 여자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다. 질투의 대상이 모든 여자인

16) 有島武郎(1918) 「石にひしがれた雑草」叢文閣 p.6

17) 中村三春(1994) 「悪魔の三角形 - 「石にひしがれた雑草」における三者関係の構図 - 」『言葉の意志 有島武郎と芸術史的転回』有精堂 p.138-p.154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이론에 근거해서 ‘주체 A는 매체 가토를 개입해서 대상 M코를 욕망하고, 또한 주체가토는 매체A를 개입해서 M코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논하고 있다.

다. 이것은 『니고리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즉 남편을 빼앗기고 가정이 와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놓인 오하쓰의 질투는 어찌면 당연하고 동정이 간다. 그런데 요코는 빼앗는 당사자이지만 질투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요코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의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요코는 「고토의 동정(童貞)을 빼앗는 역할을 다른 여자에게 맡기는 것이 질투가 나서 못견뎠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모를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끼는가하면,

「뭐야, 건방지게」 요코는 앞뒤없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한마디도 입밖으로 내지 않았다. 적의- 질투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같은 - 적의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뿌리를 뽑았다.(『어떤 여자』 十二)

「적의」와 동의어라 할 수 있는 「질투」를 느끼고 있다. 『어떤 여자』에는 실로 다양한 질투가 나온다. 요코의 엄마인 오야사가 딸인 요코를 질투하기도 하고, 요코가 동생인 아이코를 질투하기도 한다. 때론 세상 모든 여자들을 적으로 여기며 질투를 하기도 한다. 그 중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구라치의 아내에 대한 질투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구라치의 아내에 대한 질투는 요코를 불안하게 하고 구라치를 의심하게 한다.

2.5 「떨어지는(落ちる)」여자들

『니고리에』와 『어떤 여자』에는 유독 「떨어지다(落ちる)」라는 표현이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하게 나온다. 『니고리에』에는 「함정(落とし穴)」 「빠지다(落込む)」 「떨어뜨리다(取落す)」라는 단어들 나온다. 「떨어지다(落ちる、墮ちる、墜ちる)」는 「위에서 아래로 급히 위치가 바뀐다. 낙하하다」「영락하다, 퇴락하다, 쇠퇴하다」¹⁸⁾등의 의미가 있다. 영락한 오리키의 삶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수록 오리키의 삶도 점점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된다.

오리키는 일곱 살 때 심부름으로 쌀을 사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하수구에 그 쌀을 「떨어뜨린(落した)」다. 오리키와 그 가족은 그날 저녁만이 아니라 며칠을 굶어야만 했고, 오리키에게는 평생 상처가 된다. 그 이후로 오리키는 「떨어지는(落ちる)」삶을 반복하게 된다. 어찌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랬고 그 삶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하쓰의 아들에게도 일어난다. 바로 오리키에게서 받은 카스테라를 오하쓰가 던져버림으로써 카

18) 『広辞苑』第五版 [電子辞書]、カシオ

스테라가 하수구에 「떨어져(落ちて)」 버린 사건이다. 다키치에게도 평생 못 잊을 상처가 되는 사건이 될 지도 모른다. 오리키의 「떨어지는(落ちる)」 삶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으로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들 수 있다. 바로 오리키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누가 백여우(白鬼)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정말 잘 지었다. 요괴로 득실거리는 무간지옥을 생각나게 한다. 딱히 계략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남자들은 피의 연못으로 끌어들여 빗터미의 바늘산에 올라앉게 만드는 것이 그네들의 주특기라고 듣고 나면, “아이, 들렀다 가요”하며 알랑대는 목소리도 뱀 잡아 먹으려는 썰렁한 무서워진다.¹⁹⁾

무간지옥을 사는 「요괴」 오리키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기만 지옥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떨어뜨리는」 것이다. 오리키도 처음부터 이런 곳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기쿠노이의 오리키도, 악마의 화신일 리가 없다. 사연이 있어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왔다.」(五) 오리키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진」 삶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유키에게 들려줄 때도 「무엇보다 나는 타락(自墮落)한 여자입니다. 양가집 규슈가 아닌 것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요」라는 말로 시작한다.

요코의 경우는 어떠한가? 요코는 자신이 「천상에서 내려보내진 왕녀」로 때와 장소를 잘못 골라 내려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리키와는 다른 방식의 「떨어지는(墮ちる)」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왕녀」의 삶에서 구라치와 서로를 「타락(墮落)」시키는 사랑을 하는 삶을 택한 요코는 「왕녀」가 아닌 「악마」의 모습으로 비쳐진다.

나는 아무래도 태어나서는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장소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야 할 시대와 장소는 어딘가에 따로 있다. 거기서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힘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곳을 찾아내고 싶다. (『어떤 여자』 十六)

위 인용도 『어떤 여자』 개고시, 추가된 부분이다. 아리시마는 히구치 이치요의 사진을 보면서 히구치 이치요가 위의 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리고 『어떤 여자』의 요코상에 이치요의 이미지를 덧입힌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장소」에 태어난 요코와 이치요

19) 樋口一葉、『たけくらべ・にこりえ』、角川文庫 1998 p.113

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아리시마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아리시마와 이치요는 요코와 오리키를 통해서 메이지시대의 자멸해가는 슬픈 운명의 여성을 그렸다. 메이지를 산 여자의 삶, 그러나 이해받지 못한 삶을 산 여자들, 여기에는 요코와 오리키뿐만 아니라 이름없는 구라치의 아내도, 「요괴」로 변해버렸을 오하쓰도 포함된다. 『니고리에』의 오리키와 오하쓰의 삶에 자신의 삶을 투영한 이치요도 『어떤 여자』의 여자의 삶을 사는 요코를 바라보는 남자 아리시마도 이들의 삶에 한없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그린 여자와 여자가 그린 여자, 그리고 그 질투의 양상은 비슷한 듯하나 다르며 그 「떨어지는(落ちる)」 삶은 질투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3. 결론

질투를 통해 아리시마의 『어떤 여자』와 히구치 이치요의 『니고리에』를 살펴보았다. 『어떤 여자』는 1년 전 발표한 『돌에 짓눌린 잡초』에서 나타난 남자의 질투와 대비되는 여자의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니고리에』에는 주인공인 오리키의 질투는 표현되지 않고, 오하쓰의 질투가 드러나 있고, 그 질투를 인식하는 남편 겐시치가 있다. 오리키의 질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질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과 어차피 보통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보통 사람들처럼 고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자괴감때문일 것이다. 『니고리에』는 주로 오리키의 이야기로 많이 언급되어왔지만, 이치요의 시선은 오리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오하쓰에게도 넉넉히 머물고 있다. 때문에 이것은 오리키와 오하쓰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즉 오리키와 오하쓰의 삶의 영역에 분명한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키를 「요괴」라 욕하던 오하쓰의 삶이 내일의 오리키의 삶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떨어진다(落ちる)」고 표현되는 오리키의 삶은 질투조차도 해선 안 될 것 같은 오리키의 퇴락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어떤 여자』는 요코의 이야기이다. 구라치의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감정 등은 그다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요코는 모든 것을 빼앗는 사랑을 하면서 모든 여자들에게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온전한 구라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질투하는 요코는 처음에는 구라치의 아내에게 적의같은 질투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또 동생인 아이코에게 질투하면서 점

점 「떨어지는(墮ちる)」 삶을 살게 된다. 결국 병으로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오리키와 요코 둘 다 「태어나야 할 시대와 장소」에 제대로 태어났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극복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자들의 삶에 이치요는 자신을 투영해가며, 아리시마는 한없는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参考文献】

르네 지라르/김모세(2008)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p.104
禹聖雅(2008) 「有島武郎と樋口一葉」 『日本文学論叢』 第8輯

『広辞苑』 第五版 [電子辞書]、カシオ
有島武郎(1918) 「ある六月の日記」 新潮
有島武郎(1996) 『或る女』 新潮文庫
有島武郎(1918) 「石にひしがれた雑草」 『有島武郎全集 3』 叢文閣
樋口一葉(1998) 『たけくらべ・にごりえ』 角川文庫

『文学』 (1986) <明治三十年代の文学> vol 54 p.67
『文学』 (1988) <樋口一葉> vol 56 pp.7-10
『国文学解釈と鑑賞』 (2007) <特集 有島武郎> pp.29-31

伊藤氏貴(2004) 「一葉——その視線の圏域」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樋口一葉 日記の領分/創作の場」 p.191
上杉省和(1985) 『有島武郎一人とその小説世界—』 明治書院 p.237
小泉一郎(1978) 「有島武郎とホイットマン」
『比較文学研究 有島武郎』 朝日出版社 p.90 p.104
小坂晋(1979) 「「石にひしがれた雑草」と「或る女」」 『有島武郎文学の心理的考察』
桜楓社 p.34
紅野敏郎編(1980) 『有島武郎 『或る女』 を読む』 青英舎版 pp.158-159
菅聡子(1999) 『時代と女と樋口一葉』 日本放送出版協会 p.193
高原二郎(1991) 『有島武郎』 清水書院 pp.61-63
中村三春(1994) 「悪魔の三角形 —「石にひしがれた雑草」における三者関係の構図—」
『言葉の意志 有島武郎と芸術史的転回』 有精堂 pp.138-154
本多秋五(1955) 『「白樺」派の文学』 講談社 p.178
宮野光男(2002) 『有島武郎の詩と詩論』 朝文社 pp.93-94
山田昭夫(1976) 『有島武郎・姿勢と軌跡』 右文書院 p.103
山本欣司(2009) 「過去を想起するということ—「にごりえ」を読む—」
『樋口一葉豊饒なる世界へ』 和泉書院 p.122
吉成勇編(1992) 『日本「神話・伝説」総覧』 新人物往来社 pp.244-245
渡辺澄子編(2000) 『女性文学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p.23-24

要 旨

本稿では有島武郎の『或る女』と樋口一葉の『にぎりえ』を比較した。有島武郎は樋口一葉の天才に感服し、日記とエッセイを書いたことがある。時期的に『或る女』完成に影響を及ぼしたと思われる部分である。

まず女主人公お力と葉子が似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した。お力と葉子はよく似ている。二人とも男からすべてを奪ってしまって結局彼らを墮落させる。そのため「鬼」とか「悪魔」と呼ばれている女たちである。

そしてお力と葉子が奪ってしまった男を夫としている妻たちを見てみた。『にぎりえ』のお初は妻として自分の声をだしている。しかし『或る女』の倉地の妻は黙っている。

それで男女関係での嫉妬を各の作品で調べてみた。『にぎりえ』にはお力の嫉妬は表れていないし、お初の嫉妬が言及されている。これはお力が嫉妬をしないという意味ではなく、「勝手になれ」という捨て鉢の心とどうせ世間並の生活はできないのに世間並に悩むなんて間違いという自壊によるものである。これに対して『或る女』の葉子は徹底的に自己中心に周りのすべての女に嫉妬する。それは完全な愛を奪うためであった。

最後に両作品とも「落ちる」または「墮ちる」という言葉がよく出ていることに注目してみた。米をどぶに「落した」ことから始まるお力の「落ちる」生活、現在の無限地獄の生活、そして無理心中。今ここでなければ「女王の座になおっても恥ずかしくない」、自分は「天上からおりた王女」だと既に「墮ちた」人生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いる葉子。奪う愛を通して益々「墮ちて」いく葉子の生活。お力と葉子、二人とも「生まるべきでない時代に生まるべきでない所に生まれ」た女として、彼女らに現実には越えられないし、逃れられない壁であった。

このような女の生活に、樋口一葉は自分自身を投影し、有島武郎は限りない同情のまなざしで眺め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 아내, 질투, 요괴, 악마, 떨어지다, 타락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